



총선 전초전?... 여야 대표연설로 ‘기선제압’

어제 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 지역 위기 극복 강조... 통합, 여당책임론 공세
제2공항 입장차... “절차 투명성 확보” vs “반드시 필요”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위기 극복을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 책임론’을 내세우며 공세에 나섰다.

17일 개회한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정민구 의원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지역 위기 해결에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여러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 중

정책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숙제는 바로 ‘경제’”라면서 “이미 알고 있으나 제때 개선되지 못한 경제 문제로 인해 신종 감염병이라는 외부 요인이 더 크게 우리의 삶을 더 요동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 바로, 제대로 된 산업정책, 경제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때”라면서 “특히 1차산업을 현명하게 구조조정 해나가고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주의 산업구조를 변화시켜나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근 무소속 강연호·강충룡·이경웅 의원이 입당하면서 김창국 의원을 포함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오영희 의원은 ‘정부·여당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오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나가지 않는 도민의 삶, 제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지역정치, 중앙 정치권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지역의 1당 독점 국회의원의 한계 속에 도민사회는 분열되고 갈등에 휩싸여 신음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 간은 사실상 독점된 의회가 제주도민에게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시킴으로써 도민의 뜻이 진정으로 반영되는 정책결정과정으로 되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오 의원은 “제주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래통합당은 제2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과 협력하며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미래제주’ 대표 김장영 교육위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수립·추진과 제주교육정책의 제도 수정을 주문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송재호 부친, 주민학살 관여 찾지 못해”

4·3유족회 표선면지회 주장
송재호 “아픈 상처 덧나” 사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제주시갑) 부친의 4·3행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4·3유족회 표선면지회는 17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내 유족과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사실 내용을 청취하고 4·3연구소 증언 기록 등을 찾아봤지만 송방식씨가 주민 학살에 관여한 사실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찾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히려 당시 송방식씨가 마을 유지로 표선면 관내 마을 주민들의 희생을 억지하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표선면에서 소개 생활을 할 때에 도움을 줬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면서 “송방식씨가 4·3학살에 관여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도 알아야 하기에 우리에게 그 근거를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송재호 예비후보는 부친의 4·3행적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저의 출마를 계기로 4·3의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한 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워낙 늦둥이인지라 아버지의 삶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 못했고,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행적을 더 알아보고자 수소문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도 모르고는 마친가지였다”면서 “대통령



제주4·3유족회 표선면지회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제주시갑) 부친의 4·3행적에 대한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년단을 서북청년단과 동일시해 극악 무도한 집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청단원이면서 희생된 희생자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4·3이라는 제주현대의 가

장 큰 상흔을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데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누를 수 없다”면서 “이 문제로 4·3의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일은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민주, 비례연합 의원 파견... 중진 강창일은

윤기면 선대위원장 내려놔야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 불출마하는 당 중진들에게 비례연합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주시갑 강창일 국회의원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4·15 총선부터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 정당 투표지에서 상위 기호를 받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에 의원 파견을 논의 중이다. 비례연합정당이 미래한국당보다

투표율지 앞순위에 배치되면 최소 6명의 현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택한 지역구 의원은 강 의원을 비롯해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백재현·표창원·서형수·이훈·윤일규·이규희 의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지난 16일 불출마를 선언한 강 의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배석한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

출마를 택한 의원들에게 위로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도 “(연합정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제주도 선거에 신경써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겸 제주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 비례연합정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되면 선대위원장 역할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선택
2020

제주의 미래 D-28

<정당·성명·가나다 순>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브리핑

“기후위기 극복 그린뉴딜”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제주시갑 고병수 예비후보

제주시갑 박희수 예비후보

정의당 고병수(사진) 예비후보는 17일 정의당 기후위기미래세먼지특별위원회와 정의당 제주도당과 함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 뉴딜 공약을 발표했다.

고 예비후보는 진정한 에너지 자립 섬 조성, 그린 리모델링 사업기금 조성,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무소속 박희수(사진) 예비후보는 17일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간을 없애고 항구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인들의 경우 농기계와 난방 등에 어업인들인 경우 출여경비 중 유훈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몰제를 폐지하고 항시 적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청춘 힘 되살릴 것”

“노동존중사회 만들 것”

제주시갑 임효준 예비후보

제주시을 강은주 예비후보

무소속 임효준(사진) 예비후보는 17일 “제주 ‘청춘’의 힘을 되살려 ‘제주 클래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자도를 깨우고, 케어 팜·아쿠아팜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관광모형을 제시하며, 탐라문화제에서 ‘성년식’으로 젊은이와 어르신이 아우러진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강은주(사진) 예비후보는 17일 “차별 없고 빈틈 없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말 뿐인 노동존중사회를 거부한다”며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및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보장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여객차 운수사업법 개정”

“필승의 신념으로 땀 것”

제주시을 차주홍 예비후보

서귀포시 강경필 예비후보

한나라당 차주홍(사진)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객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제주 도내 택시 및 버스회사를 방문해 청취한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현재 택시는 개인택시만 개인간 매매가 되고 있는 반면 법인택시는 매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공약했다.



미래통합당 강경필(사진) 예비후보는 17일 “그동안 서귀포시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경선에 임한 허웅진 예비후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좋은 정책을 수용해 함께 4·15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필승의 신념으로 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귀포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의 미래를 설계 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이태윤기자

해외.영농 투자자 모집

사업명 : 제주한라봉.레드향.감귤농장

■ 영농지역 : 베트남.다낭 (땅남성)

■ 사업규모 : 300ha (약100만평)

■ 영농투자인원 : 5~6인 선착순

■ 투자금액

1인당 10만usd 1억2천만원

■ 투 자 자

1인1ha (3천평), 현지, 국제, 변호사공증, 본인명의

■ 사용기간 : 50년간

■ 소 득

2년 경과후 3만usd 보장

농장매매 및 상속가능

재해보험가입가능 (주.정부행정지원)

문의 상담 제주시 봉개동 (황금농원)
H.p. 010-9292-693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 해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병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유라실생(노지, 하우스) 정상착과시
전혀부피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지관당 일만원 판매)
의심되는분은 전화주시면 노지 하우스재매
하는 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황금향 · 미니향
아마나스 · 제라몬(레몬)

조 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해 조생 ·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글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